백약이 무효…전남 AI 확산

사육 제한·드론 방역·이동중지 명령에도 사흘새 4곳 추가

최대 오리산지 나주 침투…정부 "1주일이 고비" 방역 총력

고강도 방역망을 뚫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고 있다. 사흘 사이에 전남에서만 4곳이 추가 발생했다. 국내 최대 오리 산지인 나주에까지 침투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국 가금류 농가 8곳 중 6곳이 전남이다. 사육제한, 드론 방역, 선제 이동중지 명령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시행했지만 결국 허사로 돌아가면서 방역당국을 당혹케하고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새해 첫날인 1일 나주시청 AI 상황실을 방문해 전남도의 AI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1주일이 큰 고비가 될 것"이라며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겨울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남지역 농장은 영암 4개, 고흥 1개, 나주 1개 등 모두 6개 농장이다. 전남 외 지역에서 발생한 곳은 전북 고창(지난해 11월17일)과 정읍(지난해 12월22일)뿐이다. 전남·북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AI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농가 발생은 없었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10일 영암 신북면 종오리 농가를 시작으로 19일 시종면 육용오리, 26일 덕진면 종오리 농가 등 영암에서 잇따라 발병했다. 그러다가 26일 고흥 동강면 육용오리에서 발생, AI는 영암을 벗어났고, 이어 28일 나주 공산면 종오리 농장까지 확산됐다. 같은 날 영암 시종면 육용오리 농가에서도 발생했다. 영암 농가는 19일 발생한 농가와 불과 600m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농장 간 수평 감염도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사흘새 4곳, 고흥·나주까지 확산되면서 고병원성 AI가 전남 전역의 가금농장을 휩쓰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낳고 있다. 동절기 사육제한, 철새 도래지 폐쇄, 선제 이동중지 명령, 예방적 살처분 등 전남도의 고강도 방역대책이 허사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전남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12. 10.	영암 신북	종오리	1만2000마리
12. 19.	영암 시종	육용오리	3만1300마리
12. 26.	영암 덕진	종오리	9700마리
12. 26.	고흥 동강	육용오리	1만7000마리
12. 28.	나주 공산	종오리	2만3000마리
12. 28.	영암 시종	육용오리	3만5000마리

이 과정에서 살처분 범위를 놓고 방역당국은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남도는 지난 19일 AI가 발생한 뒤 3㎞ 이내 농가에 대한 살처분을 건의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500m 이내에만 살처분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전남도 건의대로 3㎞ 이내 살처분을 단행했다면 추가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에서 오리 사육량이 가장 많은 나주의 AI 발생도 뼈아프다. 같은 농장에서 2년 연속 감염이 확인됐다.

나주의 오리 사육량은 46개 농가, 76만8000마리로 전남 전체(213 농가, 340만 마리)의 22.6%를 차지해 확산 시 파장은 크다.

전남도는 가금류 이동제한 범위를 차츰 넓히고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 지난달 31일 영암군청에서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AI 확산 방지 계열사 관계자 간담회를 여는 등 나주와 영암의 추가 발생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경남 등 인접지로 이동을 차단하는데도 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내 차단방역은 물론 역외 전염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장성 등 전북 인접지, 구례 등 경남 인접지에서 방역을 강화하고 이동 승인도 엄격히 진행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문대통령 의인들과 신년 첫 산행 문재인 대통령(사진 가운데)이 1일 오전 '2017년 올해의 의인'으로 선정된 시민들과 함께 북한산 사모바위를 등반해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北, 평창올림픽에 선수단 파견 용의"

신년사 "남북 만날 수 있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1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과적 개최를 기대하며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된 2018년 신년사 육성 연설에서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 창건 70돌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경기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 같이 의의있는 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것(평창 동계올림픽)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와 관련,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라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북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한다"면서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제안했지만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군사당국회담에 응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연합뉴스

전남도 실·국장급 승진·전보 인사

전남도는 박준수 무안부군수를 감사관에 임명하는 등 실·국장과 준국장급 승진·전보인사를 오는 3일자로 단행한다고 1일 밝혔다. 〈명단 30면〉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는 박 부군수가 승진·임용됐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에 40대 후반의 강효석 일자리정책지원관이 승진·발탁됐다.

김병주 한전 협력관은 일자리정책실장으로, 장기교육에서 복귀한 김신남 부이사관은 경제과학국장으로 발령됐다. 방옥길 감사관은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문동식 동부지역본부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전종화 공무원교육원장은 농림축산식품국장으로 임명됐다.

이인곤 목포부시장은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위광환 부이사관은 한전 협력관으로 파견된다.

정순주 관광문화체육국장은 목포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구례(최정희), 보성(유현호), 해남(최성진), 무안(장영식), 진도군(이춘봉)의 부단체장도 바뀐다.

준국장급인 대변인에는 광주전남연구원에 파견 중인 이기춘 서기관이 임명됐다. 모터스포츠담당관에 김양수 서기관,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에 박봉순 서기관이 전보됐다.

과장급 이하 승진과 전보인사는 1월 중순께 있을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신임 실·국장 프로필

박준수 감사관 감사·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행정가. 무안군수 권한대행으로 무리없이 군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광(59)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무안부군수, 총무과장

강효석 광양청 행정개발본부장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품에 미국 유학을 다녀온 학구파. 업무추진력도 탁월해 광양만권의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적임자라는 평가다.

▲목포(50) ▲서울대 행정학 석사 ▲일자리정책지원관, 지역경제과장

송경일 동부지역본부장 성실하고 합리적인 성품과 다양한 도정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이 행복한 환경복지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

▲고흥(59) ▲전남대 행정관리과 석사 ▲모터스포츠담당관, 신안부군수, 광양청 국내유치부장

김병주 일자리정책실장 명석한 상황분석 능력과 탁월한 업무추진력을 갖췄다. 한국전력과 돈독한 인연으로 에너지밸리 활성화, 한전공대 설립 등 굵직한 현안문제의 해결사 기대.

▲나주(54) ▲서울대 행정학과 석사 ▲한전 지역협력관, 해양수산국장

김신남 경제과학국장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강력한 추진력을 갖췄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신산업과 지역전략산업을 이끌 적임자.

▲해남(53) ▲연세대 경영학과 ▲한전 지역협력관, 곡성부군수

방옥길 관광문화체육국장 도정 전반에 대한 업무 이해도가 높아 전라도 방문의 해, 국제수묵비엔날레 성공 개최와 관광객 5000만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

▲강진(59) ▲조선대 경영학과 ▲감사관, 대변인

문동식 보건복지국장 치밀·원칙적인 업무 스타일로 확대 추세인 보건복지분야 적임자라는 평. '사각지대 없는 전남복지' 실현 기대.

▲해남(59) ▲광주대 법학과 ▲동부지역본부장, 광양부시장, 광양청 행정개발본부장

전종화 농림축산식품국장 농업분야 전문지식을 갖추고 선진국 최신 정보에도 밝아 전남농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농림국장을 맡게 됐다.

▲강진(59) ▲전남대 식물생명공학과 박사 ▲공무원교육원장, 광양청 행정개발본부장

이인곤 공무원교육원장 현직에 있으면서 논문 및 저서 31편을 낼 정도의 학구파. 합리적 사고와 실천력을 갖춘 공직자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60) ▲조선대 경제학과 ▲목포부시장, 해양수산과학원장

겨울 전세열차 상품 (1인 이상 출발)	①울산 간절곶 새해 일출 기차여행(무박 2일)	12월 31일(일)	99,000원
	②정동진·월정사·휴휴암 기차여행(무박 2일)	1월 05일(금)	120,000원
	③태백산 눈꽃축제 · 하이원스키장 관광곤돌라(무박 2일)	1월 26일(금)	120,000원
	④정동진 일출 · 하이원스키장 관광 곤돌라(무박 2일)	1월 26일(금)	120,000원
정기열차 상품 (최소 출발인원 확인)	①남이섬 자유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2인부터 매일출발	110,000원
	②대둔산 케이블카 기차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2인부터 매일출발	75,000원
	③남해 보리암 · 독일마을 기차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6인부터 매일출발	67,000원
	④서천 국립생태원 시티투어 기차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15인부터 매일출발	39,000원
	⑤서울시티투어 기차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108,000원
	⑥정동진 일출 기차여행(무박 2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120,000원
섬여행 상품	①홍도 · 흑산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2인부터 매일출발	218,000원~
	②울릉도 · 독도 여행(2박 3일)	최소출발인원 : 8인부터 매일출발	330,000원~
	③거문도 · 백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8인부터 매일출발	200,000원~
	④청산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150,000원~
	⑤백령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255,000원~
	⑥대마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290,000원~
버스여행 상품	①고령 고분군 트레킹 버스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25,000원
	②날좀보소 밀양 버스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30,000원
	③하이원 스키장 시즌버스 매일운행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50,000원

※ 자세한 사항은 대원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세요. www.daewontour.com

www.daewontour.com (주)대원여행사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76 자승빌딩 1층(현대자동차빌딩 옆) 후원 | KORAIL 광주본부 울산광역시